

# ‘군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실현 주력

이정호 순창경찰서장은 17일, 순창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을 맞는다.  
 지난 3월 10일 취임 이후, 그는 ‘군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실현하기 위해 경찰 가족들과 함께 숨 가쁘게 달려왔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을 누비며 순창 치안을 든든히 책임지고 있다.

##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 치안 활동

순창경찰서는 경찰-지역주민간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우리동네 안심공조망’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안심공조망’은 자율방범대, 마을 이장, 협력단체, 금은방 업주 등 경찰업무와 관련해 협력이 필요하거나 치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그룹별로 만들어 경찰서 기능과 지역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협력 치안 네트워크로 총 1,324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신변 비관 증증 환자를 구립면 자율방범대원의 안심공조망 신고로 신속하게 구조했으며, 군부대 사정 노소 사기가 극성을 부린 5월에는 순창군 위생팀과 협업해 식당업주 50여명에게 예방 문자 전송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18일에는 95세 치매 어르신을 찾고 있다는 문자를 받고 수색에 참여한 복흥 자율방범대원이 1시간 30분 만에 야산에서 발견하여 전북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정호 경찰서장은 특별범죄예방을 위해 관내 전통 사찰 6개소를 직접 방문해 시설점검 및 현장 진단·조치를 하였으며, 4월 29일에는 순창군 자율방범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5월 27일 야간 4개 중심 지역관서장과 지역자율방범대장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행복한 우리 동네 안심 합동 순찰’을 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활동으로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순창군과 협업해 경전산책로 일대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주관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 공모사업에 군산·익산시와 함께 선정돼 CCTV 설치 등 3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야간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안전한 관광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실종아동 등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드론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의 지리적 특성(농촌 산악지형)으로 각종 재난 및 실종자(치매노인·지적장애자 등) 발생 시 신속한 발견으로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드론 활용 수색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순창경찰서-순창 예비군 지역대는 실종자 수색 및 요구조사 등 조기 발견을 위해 무인 수색 장비(드론)를 수색 현장에 도입, 신속한 발견으로 실종자의 생명을 보호하기로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警·軍**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드론 협약 체결

‘우리동네 안심공조망’ 자체 운영 경찰-주민간 공동체 치안 활성화 재난 등 발생 시 주민 보호 위해 드론 도입... **軍과 협력체계 구축**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피해 회복 힘써와 경청·소통으로 위기 극복 나서



## ▲관계성 범죄 적극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순창경찰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 접수 시 적극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 및 상담 기관, 법률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형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순창지역 내 상담 기관 부재로 상담 효과 및 연계율이 저하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순창군 가족센터와 협업, 순창군 가족센터 전문 상담사에게 가정폭력·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학대 피해 아동 등을 연계하여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실천해 오고 있다.

더불어 순창군 가족센터, 범죄피해지원센터, 순창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회적 약자



이정호 서장의 경찰 활동 추진 방향

### 경찰의 진짜 힘, 시민으로부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동체 안전 만들어 나갈 것”

“우리 경찰은 주민 여러분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배려하는 자세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한분 한분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순창경찰이 되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원팀’이 되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 치안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입니다.”

경찰은 사회공공체의 일원으로서 늘 시민과 함께해야 하고, 경찰 활동의 중심에는 늘 시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진짜 힘은 바로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 참여하는 치안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동체 안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도 한층 더 든든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호를 위한 활동을 추진, △ 범죄신고 및 상담 방법 △ 피해자지원제도 등 안내함으로써 관계성 범죄에 대한 군민 관심도를 높이고 신고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 ▲이동과 치매 노인을 안전하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순창지역자활센터·순창군·순창군가족센터 등 지역 내 기관·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 치안·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위기 가정의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다.

또한 통화로 주변 상가·약국 등 26개소를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상황별 대처요령 교육을 통해 범죄피해·실종아동 발견 및 보호 등 아동 긴급보호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종아동·치매노인 예방·조기 발견을 위해 학기 초부터 어린이집·유치원·치매안심센터와 적극 협업,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존 등록 이력이 없는 신규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도 사진 교체 등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실종아동·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란 실종사건 발생 시 지문·사진·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로 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에서 방문·등록할 수 있다.

## ▲고령 운전자 및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활동 실시

지역 특성상 고령자 운전자 및 어르신 보행자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 특히 어르신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노인 스쿠터 등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 교통시설 규격 확대를 지자체와 협의 추진 중이며 전동시장 등 노인 통행이 빈번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고령 운전자 및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봄·개학철 교통안전 특별대책기간에는 보행자, 두 바퀴차(이륜·PM),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운수업체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단속 및 맞춤형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 교통사고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 ▲철저한 혼잡경비로 안전한 지역축제 분위기 조성

올해 벚꽃축제, KBS 전국노래자랑, 군민의 날 등 각종 축제·행사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순창지역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회의 참석,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동원된 경력들의 철저한 순찰과 다중인파 경비로 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축제를 만들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장류 축제 등 순창 내 행사와 함께 장미축제 등 재해재난 등에 대해서도 안전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 안전 시설물 설치 권고 등 군민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경찰 인력 운용으로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군민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 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소통과 화합 상호 배려하고, 경청과 소통으로 위기 극복

소통과 화합, 상호 배려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간 경청과 존중을 기반으로 누구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경찰 정신을 실천하고 조직 발전에 이바지한 직원을 매월 ‘모범 선행 경찰관’으로 선발해 포상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진작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동료 간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선행을 장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상하 간 신뢰 형성 및 독려 간 친밀한 관계 강화를 위해 경청 중심의 소통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